

<2012년 7월 28일 토요일 새벽 잠언>

<성자의 말씀> 주 편

1. 기도는 하나님의 정한 법이다.
2. 기도해야 나 성자도 너희를 도와 일하기 쉽다.
3. 기도를 안 하면 허무하다.
4. 나의 소원은 개인마다 온전히 만드는 것이다.
5. 모두 전능한 나 성자로 인하여 소망도 얻고, 기쁨도 얻고, 사랑도 얻고, 물질도 얻어라.
6. 너희 각자에게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 그것을 찾아 구하여라!
7. 주고받는 것이 기쁨이다.
8. 사랑을 완성하려면 매일 회개다.
9. 용서 없이는 사랑을 얻지 못한다.
10. 용서해야 용서의 문으로 들어간다.
11. 나 성자가 보낸 자가 '용서의 문'이다. 그가 곧 나다.
12. 회개해야 얻는다.
13. 시대 문으로 들어온 자만 내가 알고 대한다. 시대의 문은 나 성자다. 고로

간구하여라. 그리고 시대 보낸 자를 찾아라. 그래야 문으로 들어간다.

14. 마지막 이때, 회개의 때다.

15. 수고하고 깨닫고 안 자에게만 내가 줄 것을 주어 기쁨을 누린다.

16. 환난 중에 기뻐하여라. 환난을 당해도 의인에게는 다른 것을 또 준다.

17. 환난과 함께 복을 받아야 될 것도 있다.

18. 의인으로서 환난으로 치러야 할 조건이 있으니 피하지 말고 받아라. 그러므로 복을 받아라. 그 복은 그 길을 통해서만 준다.

19. 구원받을 자들도 시대에 나 성자가 보낸 땅의 구원자가 겪으며 가는 것을 겪으며 가야 된다.

20.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절대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며 살지 않으면 허무하고 곤고하다. 이는 그 영도 마음도 일시적인 삶을 살면서 허공에 떠서 살기 때문이다.

21. 창조주의 상대가 되어서, 그가 보낸 나 성자와 일체 되어서, 내가 보낸 자와 일체 되어서 영원한 세계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허무하지 않다.

22. 사람은 그 육도 마음도 허무하고 공허한 존재다.

23. 고로 사람은 영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영원하고 확실하다!

24. 인간끼리는 허무하다. 인간의 상대체인 영원하신 창조주와 일체 되어야 허무하지 않다.

25. ‘허공’은 허무하다. 고로 허공에서는 마음을 못 잡는다. 영원하신 전능자 삼위일체와 마음과 몸과 영이 일체 되어야 허무함도 없고 공허함도 없다.

26. 어느 때는 자기가 살아 있는 것을 못 느끼고, 어느 때는 자기가 살아 있음을 느끼니 살아간다. 이는 인생이 아직 덜 되었기 때문이다.

27. 사람이 세상 학문을 배우고 공부하여 지식의 수준을 높이고, 세상의 지혜를 얻고 살아도 인생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신과 함께 ‘영’을 만들어야 된다.

28. 마음이 강해도 육의 세계는 허무, 공허, 허탈의 세계다.

29. 사람은 ‘삼위의 마음’으로, ‘삼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육이 자기 영과 교통하고 자기 마음과 교통하며 살아야만 허무, 허탈, 공허를 벗어나 어느 때는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육체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30. 오직 전능자와 삶의 일체다.

31. 온전한 마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32. 사람은 ‘몸’으로 살아가고, ‘마음’으로 살아간다.

33. 무의미한 삶은 삶을 더욱 허무하게 한다.